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 pp.39~5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12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종교교육

李在永
(선문대학교)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와 상관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화제로 삼는 것을 금기시해왔다.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 대비교육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미래의 삶을 대비해 가는 청소년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죽음 대비교육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나 종교교육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죽음 대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죽음 현장에 참여하거나 임종이나 시신을 보는 일도 차단되었다. 죽음대비 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면, 청소년들에게 죽음대비 교육은 절실하게 요구된다. 청소년들에게 바른 생사관,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돕는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죽음대비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종합학교에서 교재로 택하고 있는 종교 과목에서 죽음에 대한 대비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서 바람직한 죽음 대비 종교교육의 구조와 방향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핵심 주제어: 죽음 대비교육, 청소년, 생사관, 죽음대비 종교교육과정.

I. 서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다. 사람들은 죽음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죽음을 의식하며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주변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자신의 죽

음이 압박해서 죽음을 생각하며 과거 자신에게 소홀했던 점을 후회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며 산다. 청소년들은 죽음은 노인들의 문제이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지만, 자살의 충동을 제일 많이 느끼는 세대이다. 목적지가 어디며 그 목적지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길을 가는 자세는 크게 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큰 차이가 있다. 인생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할 날이 줄어들고 죽음에 이르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상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죽음 대비 교육이 필요하다.

죽음 대비교육이란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또한 누구나 맞이해야 할 죽음이고 언제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죽음 대비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죽음 대비교육이란 삶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죽음 대비교육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삶을 바르고 성실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이다.

죽음 대비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면 어느 세대보다 청소년들에게 죽음 대비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살아 온 생애보다 살아야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참나적인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이런 성향으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방황하며 때로는 일탈(逸脫) 행위를 하게 된다.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나 교회의 종교교육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나 중립학교의 종교 교과서에서 죽음 대비에 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교교육 공과에서도 사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만 죽음에 대비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교육의 구조와 과정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II.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

1. 설문 답변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218매를 배부하여 전량을 회수하였다. 수업시간 중 교과목 담당선생님 지도하에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100% 회수할 수 있었다. 설문 대상자는 천안시 남자고등학교 1개교 2개 반, 여자고등학교 1개교 1개 반, 서울 남녀 공학 1개교 3개 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시 학생과 지방학생,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죽음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가정에서 설문을 조사하였으나 의식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설문 조사에서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6세에서 19세 고등학생은 중학생의 시기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고등학생 의식이 청소년의 의식을 일반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설문지 답변자의 특성

나 이	사는 곳		성별		종교			비고
	서울	지방	남학생	여학생	유	무	무응답	
16세-19세	105명	113명	142명	76명	125명	82명	11명	

<표 2>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	설문 세부 항목
1	죽음대비 교육 수업 여부	수업시간 중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가?
		죽음 대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왜 죽음 대비교육이 필요한가?
2	임종이나 주검 목격 경험 여부	가족의 임종을 지켜 본 경험이 있는가?
		시체를 가까이서 본 일이 있는가?
3	영혼 및 사후세계 존재 여부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가?
		죽은 후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가?
		빙의 현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4	자살 충동 경험과 그 원인	평소 나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가?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면 언제인가?

2.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의식

1) 죽음에 대한 교육의 부재(不在)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표 3> ‘학교의 정규 수업 중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218명의 답변자 중 ‘있다’ 10명(5%), ‘단편적으로 조금 있었다.’ 58명(26%), ‘전혀 없었다’ 150명(69%)으로 나타났다. 설문 답변을 통해 학교에서 죽음에 대한 공식적 교육이 거의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교육 부재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해왔고,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길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화의 화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거나 주검을 본 경험을 묻은 결과<표 4> 임종을 지켜 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86%에 달했으며, 시체를 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76%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아닌 주검의 장례식에 청소년의 참석을 배제시켰고,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체와의 신체접촉은 거의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임종이나 주검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이 차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은 공립학교의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 중립학교의 종교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에서는 조상들의 삶과 정신에 관한 내용은 많이 다루고 있으나 죽음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죽음에 관련된 내용은 제사나 장례의식,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서 사형제도와 안락사 문제 정도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¹⁾ 기독교 설립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연맹에서 발행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종교》 교과서에서도 전혀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²⁾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교회교육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공과에서도 죽음의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교육 부재 현상은 학교에서 죽음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었고, 죽음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편, 《도덕》 《전통윤리》 《윤리와 사상》, 교육인적자원부, 2003.

2) 한국기독교 학교 연맹 편, 《종교》, 서울: 한국기독교 연맹, 1995.

<표 3> 학교 수업 시간에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가?

있다	단편적으로 조금 있었다	전혀 없다	전체
10명(5%)	58명(26%)	150명(69%)	218명(100%)

<표 4> 임종이나 시체를 목격한 경험

	있다	없다	전체
임종하는 자리를 지켜 본 경험이 있는가?	30명(14%)	188명(86%)	218명(100%)
시체를 가까이서 본 경험이 있는가?	52명(24%)	166명(76%)	218명(100%)

2)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

영혼의 존재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표 5> '영혼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218명 중 82명(37.4%)이었고, '영혼이 없다'는 대답이 38명(17.2%)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96명(44.6%)으로 가장 많은 대답이었다.

영혼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표 5>, 조사대상 218명 중 종교인은 127명, 무교가 80명, 무응답이 11명이었다. 127명의 종교인 중 '영혼이 없다'는 대답이 10명(7.7%)이고, '영혼이 있다'는 대답이 64명(50.6%),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53명(41.5%)이었다.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영혼의 존재여부를 잘 모르고 있으며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청소년들이 '영혼이 없다'고 믿는 청소년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학생 대부분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53명(41.5%)에 달했다.

<표 5>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218명	38명(17.2%)	82명(37.4)	96명(44.6%)	2명(0.7%)
종교인 127명	10명(7.9%)	64명(50.6%)	53명(41.5)	

천국과 지옥의 존재 여부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종교교육의 중요한 주제였다. 신앙인으로 '선하게 살면 천 국 간다'는 교리는 교회에서 죽음 대비 교육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주제다. 설문에서<표 6>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는 학생이 88명(40.4%),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학생이 69명(31.6%),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61명(28%)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교육에서 강조하였던 천

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이 청소년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 6> 사람이 죽은 후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88명(40.4)	69명(31.6%)	61명(28%)	0	218명(100%)

3) 자살의 충동 경험과 원인

청소년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에서 의미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자살의 비윤리성과 비종교성을 교육하는 일은 중요한 교육적 과제다. 설문에서 <표 7> ‘자살의 충동을 느껴보았다’라는 학생이 218명 중 92명(42.4%)이었다. <표 8>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살의 충동을 느껴 본 92명의 청소년 중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 것은 ‘생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라고 한 답변이 54(5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계 단절에 의한 소외감’이 27명(29%), ‘성적이 떨어졌을 때’ 6명(6.5%), ‘남에게 무시당했을 때’ 5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에서 자살 문제,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인간관계와 삶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야함을 보여준다.

<표 7>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껴본 일이 있는가?

있다	없다	전체(백분율)
92명(42.4%)	126명(57.6%)	218명(100%)

<표 8> 어떤 때 자살 충동을 느꼈는가?

생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남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관계 단절에 의한 소외감	전체
54명(59.2%)	5명(5.3%)	6명(6.5)	27명(29%)	92명 (100%)

3.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의 필요성

설문 답변에서 청소년들은 죽은 이후 영혼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용을 할 있을 것이다. 데켄((Alfons Deeken)은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스(Kübler Ross)가 말한 죽기까지의 과정 5단계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죽음을 맞지만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6단계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 단계에서 죽음을 맞는다고 하였다.³⁾ 종교교육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후의 세계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설문에서 자살 충동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42.4%에 이르렀다. 청소년들에게 평소의 죽음 대비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교육이 곧 자살 예방 교육이 된다. 평소에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자살은 자신에게 봉착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남아진 사람에게 더 많은 문제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설문에서<표 9> 자신이 ‘죽음 대비 교육을 받은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 218명 중 102명(46.8%)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 69명(31.6%)이었으며, ‘잘 모르겠다’가 47명(21.6%)명이었다. ‘죽음 대비교육이 필요 없다’는 대답 69명(31.6%)과 ‘잘 모르겠다’가 47명(21.6%)에 이른 것은 예상외의 결과였다. 죽음 대비교육이 아직 생소하고 죽음에 대한 논의를 피하고자 하는 일반적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 대비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는 무응답이 78명(36%)이었고, 138명이 응답을 하였는데<표 10> 죽음 대비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지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103명(47%),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없애기 위하여’ 26명(12%), ‘사후에 천국에 가기위해서’ 6(2.8%)명,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5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죽음 대비교육의 내용은 지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사람은 죽음을 삶의 완성이라고 이해하며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회한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덜할 것이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인생을 불완전하게 마치는 공포, 사후 심판에 대한 공포,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있다.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사람은 이러한 불안과 공포에서 더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Alfons Deeken, *Si To Dou Mukiauka*, 오진탁 역, 《죽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서울: 궁리출판, 2002. 138쪽.

<표 9> 죽음에 대한 대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2명(46.8%)	69명(31.6%)	47명(21.6%)	218명(100%)

<표 10>죽음 대비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	지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사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	무응답	전체
26명(12%)	103명(47%)	5명(2.2%)	6명(2.8%)	78(36%)	218명(100%)

Ⅲ. 죽음 대비교육을 위한 종교교육과정의 구성

1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 진술

죽음 대비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도날드(Donld P. Irish)는 "죽음교육의 목적은 죽음에 대하여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현실을 살도록 돕는 것"4)이라고 하였다. 히구치 가치히코 역시 “죽음에 관해 배운다는 것은 실은 어떻게 사는 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관이나 사생활을 고쳐나가며, 시간의 귀중함을 알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갈 것이다”5)라고 하였다. 정진홍은 “나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 죽음을 기점으로 할 때 비로소 삶은 전체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죽음을 시점으로 할 때 삶은 투명해집니다.” 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물음은 곧 삶의 물음”6)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죽음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단순한 목적 진술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 서술이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을 진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첫째,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이 대상에 따라 구체적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세대에 해당하는 죽음 대비교육, 죽음에 직면한 자를 위한 죽음 대비교육, 죽음에 직면한 환자의 가족에 대한 죽음 대비교육, 임종을 돌보는 호스피스에 대한 죽음 대비교육 등에 따라 교육목적이 달라진다.

4) *Death Education*, ed. Betty R. Green & Donald P. Irish. Massachusetts: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1971, p. 41.
5) 히구치 가치히코, 이원호 역, 《죽음에의 대비교육》, 서울: 문음사, 2002, 184쪽.
6) 정진홍, 《만남-죽음과의 만남》, 서울: 궁리출판, 2003, 52쪽.

둘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다. “죽음은 존재의 없음이고 존재의 끝이기 때문에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없다.”⁷⁾ 이런 면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관념론이나 경험론적 방법에 의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각 종교에서는 관념론이나 경험론에 의해 설명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이론의 타당성을 실증하기가 어렵다. 다만 현상 세계의 유비(類比)에 의한 사후 세계의 설명이 가능할 뿐이다.

셋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대비교육이 어렵다. 청소년들은 살아 온 날 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을 말한다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다. 청소년들 자신도 죽음은 아직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죽음 대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나 죽음 대비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대비교육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죽음 교육이 삶을 위한 교육이라면 죽음 대비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 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대비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그들의 삶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정립하며, 자신에게 한정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 매일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 진술은 죽음 대비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준거를 제시해준다. 이 목적을 교육의 구조로 하여 피교육자에 따른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죽음 대비교육의 목표설정이 되어야 한다.

2. 죽음 대비 종교교육의 내용

설문의 답변에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 내용은 첫째, 생사관(生死觀)에 대한 교육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둘째, 삶의 희로애락이 대부분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죽음으로 인해 흠어지는 인간관계와 그에 따른 고통과 그 극복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 셋째,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고양시키는 내용과 자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1) 생사관(生死觀)에 대한 교육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은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교육하는데 있기 때문에 죽

7) 위의 책, 44쪽.

음에 대한 종교교육에서 생사관을 중심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 종교교육은 그 특성상 정치적(政治的)인 학문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각 종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종교교육의 목적 하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방향으로 피교육자를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⁸⁾

죽음 대비를 위한 종교교육도 정치적(政治的) 성격을 갖는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경험할 수 있거나 과학적 실증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교리는 선언적(宣言的)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종교교육은 선언과 교리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죽음 대비교육이 된다. 종교교육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 종교교육에서 사후의 세계에 대한 교리를 핵심 주제의 하나로 삼았다. 지상에서의 선악의 생활에 따라 사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거나, 윤회환생(輪回還生)의 급이 달라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교리교육은 지상의 삶에 대한 회의주의적(懷疑主義的) 태도나 현실도피적인 내세주의와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강조하는 종교교육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죽음 이후 사후의 세계는 현실의 삶과 상관적(相關的)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실 삶의 직시와 성실한 삶의 자세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죽음 대비교육은 현재 삶의 의미와 현실의 삶에 성실할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유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지상의 세계와 내세와의 관계를 상관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불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무상(無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이 현실세계의 실체적 현상이라고 할 때 죽음 역시 변화의 한 과정이다. 이런 사고에서 죽음은 유(有)의 단멸(斷滅)이 아니라 생의 연속인 것이다.⁹⁾ 따라서 불교에서는 사후의 세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초연할 수 있는가를 추구한다. 즉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3法人, 즉 고(苦)·무상(無常)·무아(無我)의 현상세계의 진실을 깨달으면 죽음의 문제로 인한 더 이상의 번뇌는 있을 수 없고 업(業)을 쌓지 않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불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 불교에서의 죽음 대비교육은 고·무상·무아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교육이 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위하여 부단한 정신적 수행을 통하여 무심(無心)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이 된다.

유가(儒家)에서는 죽음 자체의 의미나 죽어서 시작하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하여 인

8)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p. 15.

9) 정승식, 〈죽음은 곧 삶이요 열반〉,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2001, 84쪽.

정하지 않는다. 죽음을 신귀(神鬼) 과정으로 보지만 이 신귀는 생시(生時)의 개체 인물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항존적(恒存的)인 어떤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죽음을 개체의 소멸로 본다. 유가에서는 삶과 죽음을 시작과 마침의 개념으로 바꾸어 이해한다. 그들은 생사에 대한 생물학적 혹은 종교적 관심에서 벗어나 자기 책임 아래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율의 도덕론적 관심으로 정착된다.¹⁰⁾ 이런 유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에서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은 일회적인 인생의 소중함을 알며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하라는 것이 된다.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교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성서의 해석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있으며 영혼불멸을 믿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영생(永生)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그의 말씀 가운데 자주 영생을 언급하고 있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영생에 대한 언급이 영혼불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육신의 죽음 후에 인간의 생명을 받으시는 주(主) 하나님이 생명을 에워싸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무화(無化)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살게 된다.”는 신앙이다. 따라서 사후의 인간생명이 어떤 존재로서든지 보존되는 것은 유한한 인간 그 자신의 본질적 속성의 결과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주(主)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개입사건으로 보고 있다.”¹¹⁾ 따라서 기독교의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죄인이 아닌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서 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죄인과 의인의 갈림길은 지상에서의 결과에 따라 갈라진다. 따라서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죽음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교육이 된다.

통일교회 《원리강론》에서는 영혼을 육체의 상대적 개념으로 영인체(靈人体)라고 부른다. 영인체는 지상에서의 육신의 삶에 따라 성장하고 완성하며 지상에서 경험과 의식이 사후의 세계에서 반향(反響)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천국이나 지옥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상에서 경험과 의식이 영인체 안에서 자아를 속박하는 상태가 지옥의 상태고 자아의 해방과 자유의 상태가 천국의 상태라고 본다. 지상에서 삶의 의미란 지상에서 완성한 영인체가 사후의 세계에서 영존(永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통일교회의 죽음 대비교육은 지상에서 영인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선한 영인체로 성장, 완성시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¹²⁾

10) 유인희, 〈인간적 문화에서의 영생〉,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2001, 161쪽.

11) 김경재, 〈영생을 향한 삶의 방식〉,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2001, 220쪽.

2)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위한 도움 교육

가까운 장래에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다. 청소년들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생사관을 교육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효과적인 교육의 장(場)이 될 것이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죽음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그들을 돕기 위해 먼저 불안과 공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접근해야 한다. 알폰스 데켄(Alfons Deeken)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고통에 대한 공포,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 대하고 있는 불안, 인생을 불안정한 상태로 마치는 것에 대한 불안, 자기 소멸에 대한 불안, 사후 심판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였다.¹³⁾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서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극복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들에 대한 어느 정도 죽음의 공포를 완화시키는 것, 고통을 지탱하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픔을 깨닫게 해주는 보살핌이 필요하다.

둘째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품위 있게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죽음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정진홍은 죽음에는 ‘죽음다운 죽음’과 ‘염려스런 죽음’이 있다고 했다. 죽음다운 죽음이란 “죽음의 구석구석에 의미를 채우는 죽음이라고 하였고 염려스런 죽음이란 죽음이 삶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살다가 자신의 죽음을 맞는 모습이다.”라고 하였다.¹⁴⁾

셋째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정리를 하여 죽음의 자리가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은 주변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나 그의 가족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주변을 정리할 수 없다. 죽음 대비교육을 통해 남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죽음 후에 비난이나 경멸 받는 죽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3) 생명의 가치와 자살 예방교육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19.13명으로 세계 1위라고 하였다.¹⁵⁾ 특히 20대의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1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1994, 662-669쪽.

13) Alfons Deeken, 앞의 책, 128-132쪽.

14) 정진홍, 앞의 책, 81쪽

15) 오진탁, 《죽음-삶이 존재하는 방식》, 서울: 청림출판사, 2004, 111쪽에서 재인용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¹⁶⁾ 필자의 설문 조사에서도 청소년 가운데 자살 충동을 느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18명중 92명(42.4%)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죽음 대비교육의 내용 중 자살 예방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설문에 의하면 자살 충동을 느꼈던 때는 ‘생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라는 대답이 답변자 92명 중 55(59.2%)명에 이르고, 다음으로 관계 단절에 의한 소외감이 27명(29%)이다. 따라서 자살 예방교육으로써 생의 의미, 생명의 소중함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어야 하며, 관계의 단절에 의한 소외감 등 인간관계의 해체와 자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고통 등도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

청소년의 자아 개념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생명에 대한 교육은 신체, 인간관계, 환경 등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야 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죽음 대비교육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된다.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교육하기 위하여 낙태 문제, 안락사 문제, 생태계 보호, 평화 운동, 등에 관심과 참여를 고무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죽음대비 종교교육의 접근 방법

1) 공식적 교육과정에서의 죽음 대비교육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도덕 혹은 국민윤리의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을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중립학교에서는 종교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종교적 인생관,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인생관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도덕 혹은 국민윤리 교과에서 죽음에 대한 주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주제가 금기시되는 점과 죽음에 대한 연구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죽음의 이해가 종교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 교과서나 국민윤리 교과서에서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다종교사회이기 때문에 각 종교의 교리 간에 균형을 잃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은 학생들에게는 깨달음과 선택 그리고 행위를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 교과서에서 어느 특정한 종교의 죽음에 대한 이념이나 교리를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요 종교의 생사관을 균형 있게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도덕이나 국민윤리 교과과정을 구성하는데 종교적 주제들을 배제하는 구성하는 것

16) <자살 20-30대 사망원인 1위>, 중앙일보, 2004년 9월 23일 제 12면.

은 불가능하다. 오인탁의 주장처럼 윤리의 뿌리가 종교 안에 있으며, 도덕이 그 한계를 고하는 곳에서부터 종교의 본래적인 영역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의 힘은 종교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도덕이나 국민윤리 과목이 종교과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¹⁷⁾

2) 죽음 대비교육의 접근 방법

죽음에 대한 물음을 인식적 물음, 정서적 물음, 실천적 물음으로 분류 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이해도 위와 같은 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인식적 이해는 죽음이후의 세계, 영혼의 존재, 등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정서적 차원의 이해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허무감 등의 극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죽음 관정의 시점, 뇌사자 장기 적출, 안락사의 도덕적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종교교육이 실천 되는 장(場)은 공동체이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종교적 행동에 참여 하며 깨닫고 성장하게 된다. 공동체 안에는 잠재적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¹⁹⁾이 내재해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참여함에 따라 무의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 대비를 위한 종교교육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문화로 접근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화(文化化) 될 때 삶과 유리된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삶의 계속으로, 삶의 귀결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종교교육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과 의사소통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은준관은 경험과 의사소통에는 ① 느낌의 통로, ② 언어 구사의 통로, ③ 상징의 통로, ④ 현장 참여의 통로 등 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²⁰⁾

죽음 대비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이 네 통로를 통하여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죽음 대비교육의 접근 방법들이 있다.

(1) 언어구사의 통로

인식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위해 언어구사의 통로를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

17) 오인탁, 《기독교교육》, 서울: 종로서적, 1984, 147쪽.

18) 유호중, 앞의 책, 7쪽,

19) John H. Westerhoff III, op. cit. p. 16.

20) 은준관 변미정 외, 《어떻게-기독교교육 방법을 중심하여》, 서울: 성광문화사, 1982, 13-15쪽.

는 신앙의 입문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교리 교육을 시킨다. 죽음 대비교육도 이러한 교리 교육의 맥락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독교에서의 교리 문답교육(Catechesis), 불교에서의 설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카테키시스에 의한 죽음 대비교육 접근 방법은 죽음에 대한 선이해(先理解)를 제공하므로 학습자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 죽음의 장(場)에서 학습자 스스로 깨닫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2) 느낌의 통로를 통한 죽음 대비교육

정서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느낌을 교육의 통로로 하는 관점이다. 신앙은 사실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의한 앎보다 느낌을 통해 배우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는 그 안에 잠재적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이 내재되어 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의식에 참여하므로 학습자의 지식, 태도, 가치관, 행동, 감수성 등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시킨다. 청소년들이 임종의 자리나 장례 의식의 참여는 죽음 대비 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장례식의 참여로 죽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교리 교육을 통해 배운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3) 상징의 통로

상징을 활용하는 교육 또한 정서적 차원의 교육 통로가 된다. 종교교육에서 상징을 통한 교육은 중요한 교육적 통로가 된다. 그것은 종교적 주제들을 관념론이나 경험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교적 주제들은 상징을 통한 유비(類比)에 의한 설명이 효과적이다.

가즈히코는 죽음을 ‘큰 죽음’과 ‘작은 죽음’으로 나눈다. 큰 죽음이란 인생의 종결로 모든 것이 끝장에 이르는 두려운 죽음을 말하고, 작은 죽음이란 의식(意識)의 죽음으로 의식 상태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²¹⁾ 의식상태가 사라짐은 곧 새로운 의식의 생성을 의미하므로 작은 죽음은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죽음으로 해석된다. 존재의 소멸과 생성을 죽음과 재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죽음이 있고, 죽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라는 자각으로 죽음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죽음에 대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소멸과 생성을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인간의 죽음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귀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할 수 있게 된다.

(4) 현장 참여의 통로

실천적 인식의 접근을 위해 현장참여의 통로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장 참여의 통로란 삶의 문제와 삶의 현장에 참여함으로 그 곳에서 삶의 실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교

21) 히구치 가즈히코, 앞의 책, 37-38쪽.

육이다. 실재를 경험하고 성찰하는 교육의 한 방법으로 파울로 프레이의 프락시스(praxis) 방법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프락시스 방법이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 분석, 사고 한 뒤에 살아보고, 삶을 성찰하고 그 결과로써 행동하는 방법이다.²²⁾

우리의 삶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살고 있다. 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생명의 존중, 평화 운동, 환경보호 운동 등에 참여하는 것은 죽음으로 몰고 오는 상황을 성찰하고 행동하며 반성하는 프락시스적 죽음 대비 교육이 된다.

V. 결 론

청소년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종교교육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과 종교교육에서 죽음에 대한 주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종교교육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교육이므로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죽음을 대비한 교육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강조하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사후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이 내세 지향적이고 권선징악적인 신앙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죽음 대비교육은 현실의 가치 있는 삶의 바탕 위에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교육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의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하여 매일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생사관,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위한 도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죽음 대비교육의 장(場)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참여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교리 주입의 죽음 대비교육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반생명적인 사회 상황에 대응하는 활동에 참여하므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손원영, <기독교적 죽음교육의 연구 유형과 새 방향>, 《죽음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기》, 서울: 한국신학회, 제 7집 2002.

22) Paulo Freire, *Pedagogy of Oppressed*, New York: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90, pp. 10-11.

- 심상태, 《인간-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서광사, 1977.
- 정진홍, 만남 죽음과의 만남, 서울: 궁리출판, 2003.
- 오진탁, 《죽음 삶이 존재하는 방식》, 서울: 정림출판사, 2004.
- 유호중, 《떠남 혹은 없어짐-죽음의 철학적 의미》, 서울: 책세상, 2002.
- 은준관 외, 《어떻게-기독교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서울: 감리교신학대학편, 1975.
- 이은봉, 《여러 종교에서 보는 죽음관》,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95.
-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창, 2000.
- 히구치 가치히코, 이원호 역, 《죽음에의 대비교육》, 서울: 문음사, 2002.
- 포그리블러, 심상태 역, 《죽음-오늘의 그리도교적 죽음이해》,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2.
- Kubler- Ross Elisabeth, On Death and Dying, 성엄 역, 《인간의 죽음》, 왜관: 분도출판사, 1982.
- Rawlings Maurice, 변지협, 윤향연 역,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 Deeken Alfons, Si To Dou Mukiauka, 오진탁 역,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궁리 출판, 2002.
- Green R. Betty & Irish P. Donald, (Ed.) Death Education, Massachusetts: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1971.
-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1990.
- Groome H. Thomas,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 1980.
- Hick John, Death & Eternal Life, Kentucky: John Knox Press, 1994.
- Seguin Marilynne, Gentle Death, Toronto: Key Potter Book Limited, 1994.
- Westerhoff III H. John,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 Spiro M. Howard (Ed.), Facing Death,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6.

원고접수: 10월 28일 1차심사: 10월 28일 게재승인일: 12월 3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신학(종교교육학) / 소속: 선문대학교 교수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종교의식(宗教儀式)
 - ③ 주요논저: 《심정교육론 연구》, 《예배와 설교》,
 〈종교의식의 종교교육적 구조와 과정〉
 - ④ E-mail: jaeylee@sunmoon.ac.kr
-

The Youths' Perception of Death and The Religious Education

Lee, Jae-Young
(SunMoon University)

《Abstract》

Life is inevitably related to death. Yet Koreans have considered it a taboo to talk about death. To lead a more meaningful and valuable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receive preparatory death education. Preparatory death education can exert a great influence on the youth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ir views of life and value systems.

A survey conducted for this study reveals that Korean schools provide virtually no curriculum for the preparatory death education for the youths. The youths are not even allowed to watch death scenes or dead bodies, let alone the preparatory death education. Since the preparatory death education is in fact an education to lead a better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the youths with the preparatory death education.

Preparatory death education or education for suicide prevention will help the youths appreciate the value of life, establish proper views of life and death, and learn how to aid people facing deaths.

To properly conduct preparatory death education for the youths, it should be dealt with in the ethics courses of Middle and High schools, and in the religious courses of various missionary schools. This study conducted an investigation of the youths' perception of death in an attempt to provide a proper direction for preparatory death education.

Key words: preparatory death education, youths, view of life and death, religious curriculum for preparatory death education.